

한파 녹인 응원 열기...“끝까지 파이팅”

2020 수능 시험장 가보니

입실 확인 후 발걸음 폐지 못한 학부모들 ‘울먹’
긴장한 학생들에 용기 심어준 교사들 간식 제공
수험생들도 차분하게 마무리·서로 격려하기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광주·전남 8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갑작스레 찾아온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시험장마다 수험생들에게 힘을 보태려는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가족과 교사, 후배들은 수험생의 손을 꼭 붙잡아주거나 박수를 치면서 추운 날씨 속 수험생들의 긴장을 덜어줬다.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26시험장 서구 상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러 나온 교사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삼삼오오 모여 입실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정문까지 함께 걸어온 수험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날 강한 바람으로 인

해 전날 아침보다 체감온도가 5~10도 이상 떨어진 탓에 수험생들은 목도리와 장갑, 두꺼운 외투 등으로 중무장하고 수험장으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는 ‘사랑해,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이라며 울먹이는 부모들의 모습도 보였다.

한 수험생 가족은 서로 일싸안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에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이 수험생 아버지는 “빨, 집중해야돼!”라며 조언했지만, 되레 긴장한 나머지 손에 쥐고 있던 도시락을 전달하지 못할 뻔한 해프닝이 벌어져 주변에 훈훈한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수험생 딸을 들여보낸 뒤에도 남편과 함께 한참동안 교문 앞을 지키기(4

6·여)씨는 “그동안 고생 많았고, 노력해온 만큼 편한 마음으로 실력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며 입실시간 종료인 8시10분이 돼서야 자리를 떠났다.

교사들은 ‘잘 찍어라, 찍는 것도 실력이다’, ‘끝까지 집중하고 잘 봐’ 등 응원과 함께 쉬는 시간에 즐길만한 작은 간식거리도 함께 건넸다.

동신여고 문경라 교사는 “아이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긴장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나왔다”며 “오늘만 더 집중해서 간절히 바라는 대학에 꼭 합격하길 바란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차량 통제에 한창이던 김길현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는 취재기자의 ‘출지 않냐’는 질문에 “제가 추운 게 무슨 상관입니까, 수험생들이 문제죠”라며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고, 또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험장에 들어서고 난 후 입실을 앞둔 수험생들도 짬 내 친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26지구 20시험장인 광덕고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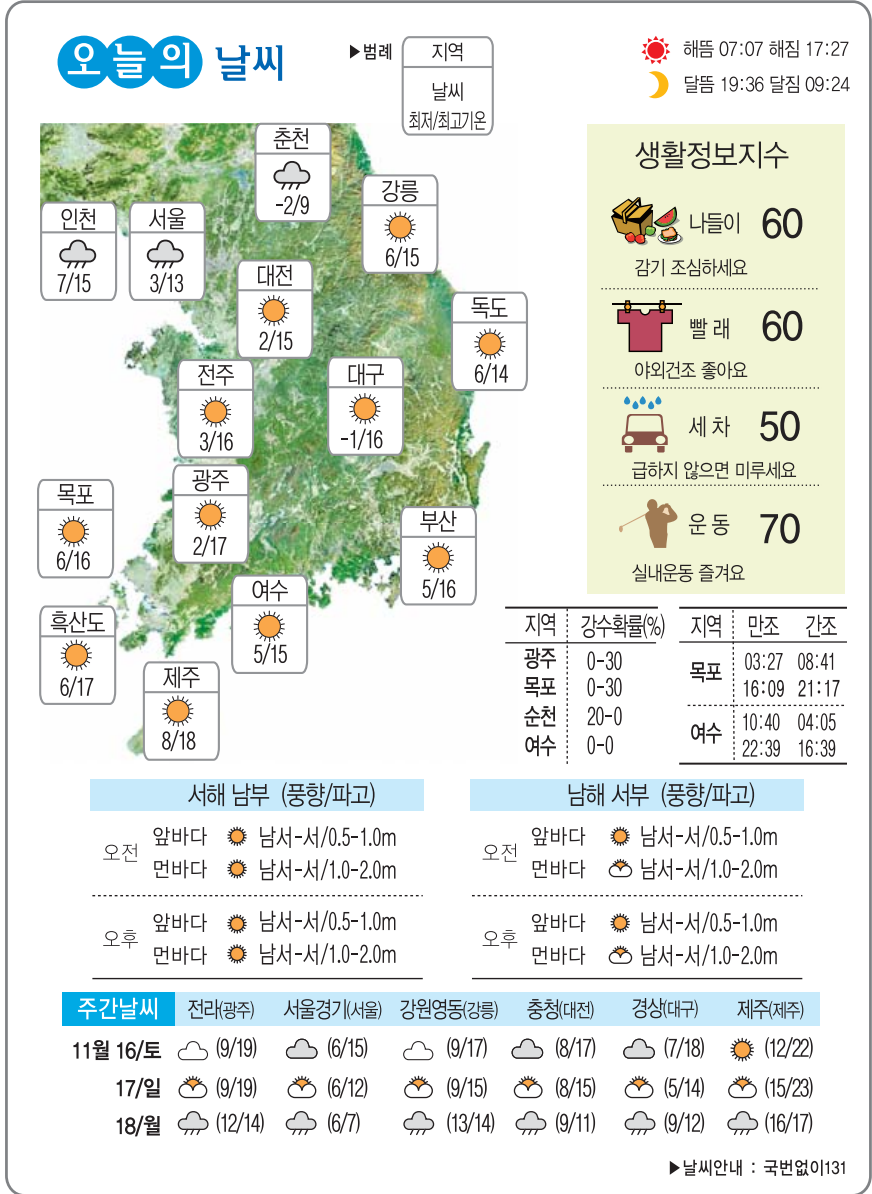
서는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시험장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손뼉을 쳐주며 파이팅을 외쳤다.

이용섭 시장과 시청 관계자들도 시험장 앞에서 학생들을 응원했으며, 장회국 광주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손뼉을 치며 격려했다. 수험생들은 속스리워하면서도 응원에 힘입은 듯 상진된 표정으로 교정에 들어섰다.

이날 26지구 33시험장 광주여고의 복도나 계단에서는 친구들과 서로를 격려하는 수험생들도 보였다. 수시 확대로 이미 대학 합격생이 다수였으나, 남은 수시와 정시 전형에 위해 남은 시간동안 차분하게 마무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었다.

수험생 A양은 “공부하는 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고, 친구인 B양은 “이제야 수능을 본다네가 것이 실감이 난다. 친구들과 모두 후회 없는 시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줬다.

이날 광주와 전남 84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졌으며 광주 1만8천563명, 전남 1만5천993명이 응시했다. /사회부



수시 논술 등 대입 전형 일정 본격화

수능 이후 일정

내달 4일 성적 발표
26일 정시 원서접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수능 성적 발표, 정시 지원 등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능 후 첫 주말인 16~17일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여대, 숭실대 등에서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된다.

다음 주말인 23~24일에도 경북대, 부산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의 논술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수능 이후 수시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 이달 셋째 주부터 다음달 첫째 주까지 치러진다.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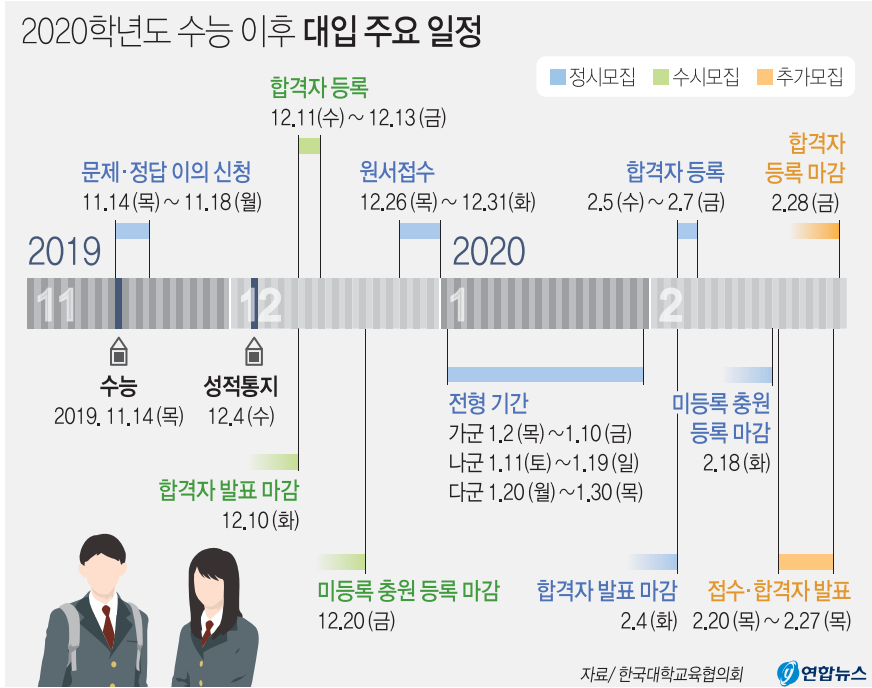
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므로, 수시 논술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 가채점 결과만으로 자신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가늠해야 한다.

대학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1~13일, 수시 모집 마감일과 충원 등록 마감일은 다음달 20일이다.

12월4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이후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가군 대학의 경우 내년 1월2~10일이며, 나군과 다군 대학은 각각 같은 달 11~19일, 20~30일이다.

2020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190개 대학에서 7만9천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문·자연계 모집단위의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2개 대학에서 수능시험을 100% 반영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4일까지이며 등록 기간은 내년 2월5~7일이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27일까지 완료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경찰, 수능 현장서 ‘맹활약’

지각 수험생 이송 등 동분서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광주·전남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1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10분까지 수능과 관련해 13건의 신고를 접수, 수험생 총 14명의 시험장 입실을 지원했다. 지각 수험생 이송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장 착오 수험생 이송 2건, 수험표 찾아가기 1건 등이었다.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차량 정체로 지각을 걱정한 수험생들이 교통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차로 무사히 시간 내에 시험장에 도착했다. 대남도로 남광주

농협 부근에서는 수험생 2명이 한꺼번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분증이 바뀐 수험생 8명이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오전 7시18분께 순천시 송광면의 한 마을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던 수험생이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탔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수험생은 낙안면에서 순천에 일고로 가야 했으나 반대편에서 버스를 잘못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에 수험생을 태우고 시험장까지 40km 이상을 달려 입실 마감인 8시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수 기자

◇광주소방, 엘리베이터 갇힌 수험생 무사히 구조 =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운영한 '119 수능도우미'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능 시험일인 14일 오전 7시19분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 승강기가 멈춰 서면 2명이 갇혔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되자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했다. 특히 신고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수험생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119출동대는 수험생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 16층에 갇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김모(19·여) 학생을 무사히 구조했다. 또 시험시간에 늦지 않도록 구급차를 이용해 수험장인 설원여고로 이송했다.

앞서 오전 7시에는 백혈병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수험생 어모(20)씨를 복구 국제고로 이송하는 등 3건의 이송서비스를 실시했다.

◇시험장 착각한 수험생 '이동 시험' = 광주에서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수험표를 잘못 챙긴 학생 4명이 교육당국의 협조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아찔하고 긴박했던 수능 당일

엘리베이터 갇힌 수험생
시험장 착각에 긴급이송
시력 이상에 시험 포기도
실내화 놓고와 안절부절

시교육청에 따르면 A 학생은 이날 오전 수능 시험장이 아닌 재학 중인 학교로 등교했다.

시험장으로 제시간 이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감독관은 재학 중인 학교의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A 학생 외에도 2명이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 2교시까지 시험을 치른 뒤 점심시간을 이용해 원래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B 학생은 지난해 수험표를 들고 갔다가 패배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수험표를 새로 만들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력 이상 호소 수험생, 결국 시험 포기 = 이날 광주에서 한 수험생이 시력 이상으로 시험을 중간에 포기해 주변인 안타까움을 샀다.

광주시소방본부와 시교육청에 따라

면 상일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2교시 수학 과목 시험이 한창이던 오전 11시12분께 수험생 C(18)양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C양은 갑작스럽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는 증상을 감독관에게 알렸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C양은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

◇실내화 놓고 온 수험생 '어디서 팔아요' = 수능이 치러진 광주지역 한 시험장 입구에서 아침 일찍부터 실내화를 찾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 여성 수험생은 이날 오전 7시36분께 광주 서구 한 고교 앞에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입실하던 중 뒤늦게 실내화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실내화 어디에서 팔아요”라며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이 긴장한 탓에 실내화 주머니를 집에 두고 온 것으로 보인다”며 “실내화, 도시락 등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격려했다.

/사회부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초고난도 문제 없어”

수능 출제위원장 “EBS와 70% 연계해 출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심봉섭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는 14일 오후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수능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8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제 방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고, 오히려 두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 그 이후의 학습 준비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EBS와 70%를 연계해 수능 문제를 내는 것은 국민과 약속”이라며 “7월에 평가원에서 시행 세부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수능도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



준에서 EBS 수능 고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EBS 연계 대상 교재에 관해 “올해 고3 대상으로 발간된 EBS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계 방식은 영역과 과목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개념이나 원리, 지문 자료, 핵심 논지